

“탐나는전, 국비 축소로 재정부담 가중”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 2차 회의 할인 혜택 따른 국가지원 비율 80→40%로 줄어 “대정부 절충·지역환경원 규모 확대 등 적극 나서야”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탐나는전은 지난해 200억원 어치가 발행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초 예산(1500억원) 대비 2.8배 증가한 4250억원 어치가 발행됐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발행 규모도 2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소비가 많았다는 뜻으로, 탐나는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발행 규모가 늘면 늘수록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제주도와 정부는 이 할인 혜택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행 초기 탐나는전 할인 혜택에 대한 공적 자금 부담 비율 정부 80%, 제주도 20%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 부담이 축소돼 정부 60%, 제주도 40%에서 현재는 정부 40%·제주도 60%로 역전됐다.

이를 두고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탐나는전 발행대행사의 지역 환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계약을 맺고 탐나는전 발행대행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 제주도는 정확히 얼마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계약상의 문제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경미 의원은 “탐나는전 판매 호조에 따라 발행 규모가 늘면 운영 대행사 수익도 증가한다”며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추가 발행으로 대행사가 얻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제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체육산업 확대” 박호형 의원 “2차 계획때보다 예산 절반 줄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미래 10년을 책임질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체육 산업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동2동 갑)은 “제2차 종합계획에는 체육 분야 예산이 1600여억원 반영됐는데 3차 계획에는 절반인 855억원만 반영됐다”며 “또 다른산업들은 3차 계획에서 (규모가 큰) ‘장’으로 분류됐지만, 스포츠 산업은 ‘질’로 분류됐다. 스포츠 산업이 평가 절하됐다”고 질타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 체육 분야는 제5편 전략별 추진 계획 중 제5장 제주 산업기반 확충 안의

제5절에 포함된 상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춘화 문화체육대의협력국장이 “5개년 스포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최상위 법정계획에도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하위 계획으로 보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도 “제3차 종합계획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실하다”면서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3차 종합계획은 이번 회기 때 상정 보류돼 다가오는 10월 임시회 때 심사를 받는다. 이상민기자

제주도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추가 감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계획한 직·간접적 감면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착한입대인 건물분 재산세 감면, 고급요양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방식으로 11억원, 지방소득세 징수유예와 같은 간접 지원으로 46억원을 감면한다.

제주자치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세(사업소분) 등을 추가 감면할 계획으로, 이달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11월 중으로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코로나로 장기체류 관광객 증가

서귀포시 자체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달살기·휴양지로 선호… 힐링·치유 욕구도 높아

코로나19로 장기체류하는 관광객이 증가했고, 일반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힐링과 치유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1306명)와 소라의성(695명) 등 2곳에서 방문객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서귀포시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6박 이상 장기체류하는 관광객의 비율은 지난해 12.3%에서 올해 19.6%

로 증가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방문객의 6박 이상 숙박비율(2020년 3.2%, 2019년 3.9%)에 견줘 압도적으로 높아 한달살기나 코로나19 휴양 대상으로 서귀포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서귀포지역을 재방문하는 비율도 높았다. 관광안내소를 2회 이상 방문한 관광객은 58.6%이며, 소라의성의 경우는 3회 이상 방문객만 48.1%를 점유했다. 관광안내소가 천지연과 새연교 인근에 위치해 일반관광객이 방문 필수코

스로 자리 잡았고, 소라의성은 올레6 코스와 연계해 도보객과 웰니스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이가 많았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순위변동도 눈여겨 볼만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트렌드 변화로 올해 조사결과로 야간관광(20.8%), 힐링·치유(16.4%), 축제·이벤트(16.1%) 등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야간관광(25.7%), 축제 이벤트(15.2%), 힐링·치유(14.5%) 등에 비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주요 교통수단으로 렌터카 비중이 59.4%로 지난해 68.6%에 견줘 감소한 반면 버스 이용은 13.8%로 전년 도 8.9%보다 상승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서귀포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31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상자는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관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s://kras.jeu.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일사관리부동산통합민원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 “원희룡 지지” “제주출신 대선 출마 제주미래 위한 기회”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당내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연호·강종룡·김황국·오영희·이경용 제주도의원은 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공직윤리에 충실하기 위해 이른바 ‘지사찬스’도 마다하고 광야에서 미래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어 “원 전 지사는 7년 동안 난개발을 차단하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청정제주 송악선언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첨단휴양관광 미래도시 제주로의 힘찬 도약을 제시했다”고 추켜 세웠다.

이들은 “제주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당당히 중앙 정치무대에 서 빛을 내고 있는 이번이야말로 제주 미래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을 떠나 제주도민이 똘똘 뭉쳐 응원하고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원 전 지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